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첩첩산중’

도, 기본계획안 마련... 의견수렴 거쳐 9월 확정
유통명령제·농가별 지원범위 한도 설정 등 검토
농가 동참 위한 공감대 확보·정부 설득 등 필요

공급 과잉과 유통처리 한계 등의 지적을 받은 제주 월동채소의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유통 혁신과제 발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농가들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하는 품목별 지원한도 조절이나 유통조절 명령제, 사전 면적조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공감대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통해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지금까지 관(官)의 존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행정과 생산자단체·품목단체·농업인의 책임과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과제로는 ▷제주형·정부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 개선 ▷월동채소류 유통명령제 도입 ▷월동채소 사전 면적 조절제 도입 ▷월동채소 농가별 지원범위 한도 가이드라인 설정 ▷발작물 품목별 조직화 육성 ▷발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방안 ▷다품목 소량 생산기반 구축(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 ▷월동무 세척장 신고제 및 출하신고제 도입 등 15가지가 제안됐다.

문제는 도내 농가들의 공감대 확보와 정부 설득 등이다.
월동채소류 유통명령제 도입 과제

의 경우 기존 월동무에 한정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을 양배추와 당근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통에 개입, 출하조절이나 최저·최고가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산지유통인·저장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등 유통협약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월동채소 농가별 지원범위 한도 가이드라인 설정 과정은 소규모·영세농가 등의 보호 차원에서 호응이 예상되지만, 지원 규모가 대농에게 제한될 수 있어 일부 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발작물 주산지 지정·육성방안도 사전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비주산지 농가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설명회에 이어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9일쯤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처음으로 발작물 대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대상 농가와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농가 안정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책을 만들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무더위 속 틈살하게 자라난 고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뜨거운 햇살 아래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마지막 장맛비... 20일부터 본격 무더위

주말엔 열대야 현상 전망
제5호 태풍 ‘다나스’ 접근

제주에 마지막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7일은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후에 산지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18일과 19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17일 제주지역 예상 강수량은 5~30mm로 전망됐지만, 장마전선의 북상 정도에 따라 강수량·시간·구역 등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이번에 내리는 비가 마지막 장맛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가 그치는 20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다.

20일 아침 최저기온 26℃, 낮 최고기온은 31℃를 보이는 등 오는 2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올해 처음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16일 오후 3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5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시속 23km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상청은 “‘다나스’는 앞으로 방향을 바꿔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발생 초기여서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양과·마늘 가격 안정 장기대책 강구”
문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대책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작황에 따라 가격 폭락 등의 피해를 보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양과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과잉생산과 산지 폐기 등이 발생하는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토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됐지만,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지 않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중요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道, 34만면 전산화 작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요 종이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록물 DB사업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종이문서 34만면을 낱말이 정리·분류된 뒤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사업비 1억7600만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록물 이중보존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원본 종이문서는 항온항습 시설을 갖춘 서고에 별도 보관하게 되며, 전산화된 파일만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해 열람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DB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 서고에 소장중인 2000년 이전 옛 북제주군 생산 종이문서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해 행정시 담당자들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하나라트
신선한 농수축산물 풍요로운 방식
농업인의 정성을 느껴주세요.

2019 세계자연유산 제주 거문오름국제레저개최를 축하합니다.

우리몸엔 우리 농산물이 좋습니다!

제주시농협
하나라트 제주점 729-1551
식재료매장 729-1621
하나라트 오라점 747-6260
하나라트유통센터 750-6500

하나라트 오라점

하나라트 제주점

하나라트 유통센터

하나라트 제주점